

“오월 ‘장미의 낭만’ 곡성 장미축제 오세요”

전국 최고 흑자 축제 17~26일 기차마을 일원서 열려
로즈컬러런·‘갠성파워’ 등 젊은층 겨냥 프로그램 눈길
유명그룹 코요테 스탠딩 무대 등 흥겨운 축제 한마당

“세계가 극찬한 새로운 장미축제 보러 오세요.”
곡성군은 전국 최고 흑자 축제를 자랑하는 세계장미축제를 오는 17일~26일까지 기차마을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군은 5월 중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다른 지역 장미축제와 차별화하고자 행사 주제를 기존 ‘향기, 사랑, 꿈’에서 ‘골든 로즈 페스티벌’로 변경하고 축제 준비를 마쳤다.

행사 프로그램도 ‘로즈컬러런’, ‘갠성파워 청춘남녀 연인만들기’ 등을 보강해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행운의 황금장미, 상상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 기간 중에 장미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장미 관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울러 장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장미의 낭만’에 ‘축제’의 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최해 젊은 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컬러런이 장미축제답게 ‘로즈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로즈런은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의 파우더를 뿌리며 축제장과 인근 지역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이벤트다.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로즈런에는 전국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나는 디제잉이 레이스 참가자들에게 흥을 더하고 레이스가 끝나는 종착지에서는 유명 그룹 ‘코요테’의 스탠딩 무대가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축제장인 기차마을 곳곳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설

없이 펼쳐진다.
올해는 시니어스타 메이퀸 선발대회, 컬러홀릭 뮤직페스티벌, 라비앙로즈 뮤직 페스티벌, 곡성 크래프트×갠성파워(젊은 청춘남녀 연인만들기), 게릴라 뮤지컬, 뮤지컬 킨 최정원 콘서트 등 매일 다른 이벤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곡성세계장미축제는 2017년 기준 전국 지역축제 중 흑자액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결산한 2017년 전국 472개 가운데 흑자를 내는 축제는 고작 4개에 불과한 가운데 해마다 방문객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4억 1400만원의 흑자를 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몽중산다원 조합법인, 보성다향축제 ‘한국명차’ 대상

몽중산다원 영농조합법인이 제45회 보성다향축제 ‘한국명차 선정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사진>
보성다향축제기간에 보성군한국차문화공원 보성차품평관에서 열린 한국명차 선정대회에는 보성 지역 10개 업체와 하동군 1개 업체가 참여했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차산업연구소, 대학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6명을 위촉해 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명차 선정 심사 기준은 외형 20점, 찻물색 15점, 향기 25점, 맛 30점, 우린 잎

10점으로 대상을 수상한 몽중산다원 영농조합법인 정경환 대표의 명차는 차맛과 향기 등에서 최고점을 얻어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명차에 선정된 녹차는 보성군정 홈페이지를 통해 보성농차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금상은 보성청우다원 안명순 대표, 은상은 백학제다 박부원 대표, 동상은 다도락 조현근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1인 가구 많아졌다

2017년 1만5090세대 전년비 130세대 증가

곡성군 지역의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곡성군은 지역의 토지·기후에서부터 인구·사업체 수·교육·문화 등 19개 부문 262개 항목에 걸쳐 곡성군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통계연보에 곡성군의 2017년 인구는 3만131명으로 2016년 3만400명보다 269명 감소했다.
반면 세대 수는 2016년 1만4천960세대에서 2017년 1만5천90세대로 늘어,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총사업체 수는 2016년 2천42개소에서 2017년 2천38개소로 거의 변동이 없어, 계속되는 경기불황에도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광객 수는 2013년 441만6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는 150만2111명으로 급락했다가 2017년에 391만5664명으로 400만명 선을 거의 회복했다.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3.1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4.45와 비교해

1.35% 낮았다.
의료기관 종사 인력은 2016년 201명에서 2017년 174명으로 감소했지만, 보건소 의료인력은 61명에서 70명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국제 및 지방세 징수 현황, 상수도 보급률, 곡성군 연차별 세입세출 예산 등 다양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제58회 곡성군 통계연보는 ‘곡성군 홈페이지’-행정정보-군정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기다림이 빛은 멋’ 고흥 분청사기 500년 전 전통방식 재현

운대리 흙가마서 200점 구워

‘기다림이 빛은 멋’ 고흥 분청사기를 500년 전 전통방식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고흥군은 지난 3일 운대리 분청사기 2호 가마에서 500년 전의 전통 흙가마 방식으로 분청사기 200점을 구워냈다고 밝혔다.
군은 500년 전 선조들이 사용하던 전통 방식의 분청사기 제작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8일 간 ‘전통 분청사기 흙가마 소성’을 마치고 분청사기를 꺼내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가 진행된 전통 흙가마는 사적 제 519호 고흥 운대리 요지에 위치한 분청사기 2호 재현 가마터로, 도예강좌 수강생과 전문 도예가들이 분청사기의 7가지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분청사기 200여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는 분청사기 도예강좌 수강생을 비롯한 도예가, 학예연구사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소성률 70%를 예상했



도예가와 학예연구사들이 분청사기의 7가지 기법을 활용해 재현된 분청사기 200여점을 꺼내 확인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지만 80%를 웃도는 성과를 얻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500년 전의 전통 흙가마를 재현해 고흥을 대표하는 담방 분청사

기의 맥을 이어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군민들이 고흥 분청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구례군, 5일시장 ‘장터대화’ 운영...군민과 소통 마련

구례군은 군이 추진 중인 ‘맘터대화’의 일환으로 군민의 삶이 묻어있는 5일시장에서 ‘장터대화’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장터대화는 평소 군수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으로 찾아가 주민과 맘 편하게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8일 5일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처음 열렸다.
앞서 군은 열린 혁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 공감대화 뿐만 아니라, 69개 법정리를 방문하는 ‘맘터대화’를 운영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을 이끌어 가는 주체인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천하겠다”면서 “소통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군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살기 좋은 도시, 군민 모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세얼굴

“투명경영으로 신뢰받는 조합 만들 것”

신선식 고흥 두원농협 조합장

“농업인에 신뢰받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식(59) 고흥 두원농협 조합장은 “말 보다는 약속과 실천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내실 있는 알찬 1등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 조합장은 최근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 1265표 중 526표를 얻어 당선됐다.

다.
두원농협 상무를 역임한 신 조합장은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충실한 조합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그린궁 **HOME**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